

'96년 전망

# 최근의 국제 석유정세와 96년 전망



최 병 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분석실 선임연구원〉

〈표-1〉 '95년 수급현황 및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백만b/d, %)

	1995년도					95 /94 증가율					95/9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증가율	
수요	70.9	68.0	68.2	71.5	69.6	1.72	2.26	0.89	1.71	1.6	
OECD	41.0	39.2	39.7	41.4	40.3	0.74	1.29	0	1.72	0.7	
북미	19.6	19.5	19.7	20.2	19.7	-1.5	0.52	0	2.54	0	
유럽	14.0	13.5	13.8	14.4	13.9	2.19	1.5	2.22	2.86	2.2	
아·태	7.3	6.2	6.2	6.8	6.6	2.82	3.33	-3.1	-1.4	0	
비OECD	29.9	28.8	28.6	30.1	29.3	3.1	3.6	2.51	1.69	2.4	
구소련	5.1	4.4	4.3	4.7	4.6	-3.8	0	-6.5	-4.1	-4	
중국	3.2	3.3	3.4	3.4	3.3	3.23	6.45	9.68	6.25	6.5	
기타아시아	8.0	7.8	7.6	8.5	8.0	8.11	8.33	8.57	6.25	8.1	
공급	69.6	69.2	70.2	71.5	70.1	2.35	2.06	2.78	2.58	2.5	
비OPEC	42.1	41.5	42.2	43.7	42.4	3.19	2.47	2.93	3.8	3.2	
유럽	6.7	6.3	6.6	7.5	6.7	8.06	0	8.2	10.3	6.3	
구소련	7.1	7.0	7.1	7.0	7.1	0	-1.4	-2.7	-4.1	-1	
중국	3.0	2.9	3.0	3.1	3.0	0	0	3.45	6.9	3.4	
남미	6.1	6.0	6.3	6.4	6.2	3.39	1.69	5	6.67	5.1	
아프리카	2.2	2.2	2.3	2.3	2.2	10	10	9.52	9.52	4.8	
OPEC	27.5	27.6	28.0	27.8	27.7	1.1	1.47	2.56	0.72	1.5	
원유	25.2	25.3	25.5	25.2	25.3	1.2	1.61	2.41	0	1.2	
NGL	2.3	2.4	2.4	2.6	2.4	0	4.35	0	8.33	4.3	
재고변동	-1.3	1.2	2.0	0.0	0.5						

〈자료〉IEA, Oil Market Report, 1995.10

## 1. 95년 국제 석유시장동향

### (1) 수급현황

금년도 국제 석유시장은 OPEC(석유수출국가기구) 및 비 OPEC 국가들의 지속적인 증산으로 공급과잉의 상황을 이루었다. 1/4분기 단기 재고 부족과 미국에서의 하절기 휘발유 수요 급증으로 제품수급에 다소의 애로를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공급이 원활했었다. 반면 미주지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의 경제성장 둔화, 에너지절약 기술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소비증가율은 감소되어 원유의 공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증가 추세가 전년도에 이어 6%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미지

역에서도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 지역에서의 소비 감소세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의 에너지 소비 증가세는 예상보다 둔화되었다. IEA의 보고에 따르면, 금년도 비 OECD지역의 석유소비비는 2.45%, OECD 지역은 0.75%, 세계 석유소비비는 1.6% 내외의 신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1 참조).

이러한 완만한 소비증가와는 대조적으로 공급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특히 북해에서의 활발한 원유 증산은 비 OPEC의 시장 점유율을 높였으며, 유가약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편 러시아도 석유산업의 개혁으로 원유생산 감소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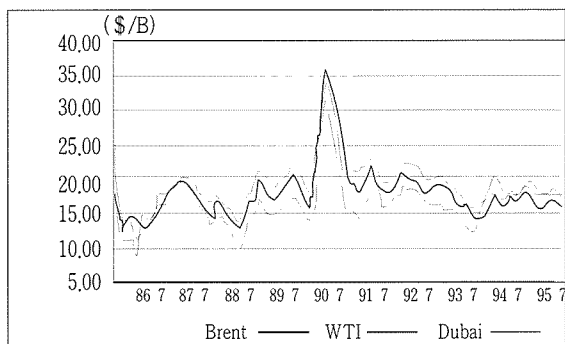
세계 석유소비의 증가분이 비 OPEC의 증산으로

충당되고, 저유가로 원유 판매수익이 감소하게 되자 OPEC 회원국의 선택은 판매 물량증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OPEC의 쿼터 유지를 통한 가격관리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OPEC의 쿼터 초과 생산량은 연평균 1백만 b/d를 넘을 전망이다.

## (2) 유가추이

최근 10년간 국제유가는 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시기를 제외하고 배럴당 10달러에서 23달러 사이에서 등락되어 왔다.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Dubai유를 기준으로 연평균 15달러 대를 오르내리면서 하향하고 있다. 금년 초 미국의 석유제품 재고감소 시기에 때 맞추어 유입된 국제 투기자금의 영향으로 원유 선물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고 이것이 상반기 유가강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림1〉 유가변동추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공급물량의 압박으로 유가는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상반기의 Dubai유 평균 현물 가격은 16.6달러수준, Brent유는 17.5달러 수준, WTI는 18.9달러 수준이었다. 하반기에는 Dubai유가 15달러 수준, Brent유는 16달러 수준, WTI는 17.5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2. 최근 석유시장의 주요특징

### (1) 포류하는 OPEC정책

수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로 인해 OPEC 회원국들의 석유수출 수익은 감소해 왔다. 특히 걸프 회원국들은 이란-이라크전, 걸프전에 따른 전비부담도 추가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수출대금의 결제단위인 달러화의 구매력 약세도 OPEC 회원국의 실질 판매수익을 더욱 하락하게 만들었다. OPEC 각국들은 재정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유가 정책 또는 물량확보 정책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나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5년도 OPEC 국가들은 판매물량 확보를 통해서라도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이것이 OPEC 회원국 스스로 정한 생산상한을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현 OPEC의 생산쿼터는 지난 93년 11월 총회에서 24.52백만b/d로 합의한 이래 2년이 경과되었다. 그 동안 세계 원유수요의 증가분은 비 OPEC의 증산으로 충당되었다. OPEC의 시장 점유율도 94년의 41%에서 95년도에는 39.5%로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OPEC 회원국의 쿼터 준수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의 가능성이 없으며, OPEC의 주무기인 생산량 통제를 통한 가격조절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OPEC 회원국들의 결속력이 급속도로 이완되었다. 금년 초부터 가봉이 회원 탈퇴 의사를 밝혀왔다.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치는 OPEC의 위력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싼 회비를 납부하고, 쿼터위반에 대한 부담을 느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sup>1)</sup> 베네주엘라와 나이지리아도 비슷한 상황이다. 쿼터를 비교적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회원국도 가격인상을 위해서라기 보다 자국의 생산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매장량의 한

1) OPEC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연회비를 납부함. 금년도 연회비는 1960만 오스트리아 Shilling(약 180만 달러)임.

〈표-2〉 OPEC 월별증산 현황

(단위 : 천b/d)

	쿼터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사우디	8000	-100	0	-100	0	200	-100	200	200	200
이란	3600	-50	50	-150	0	200	-50	-100	50	50
이라크	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쿠웨이트	2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UAE	2161	29	39	39	39	39	39	39	39	39
카타르	378	52	62	72	72	72	72	72	72	72
중립지대	-	400	440	420	440	400	400	420	450	430
베네수엘라	2359	141	201	141	201	391	391	391	391	391
나이제리	1865	-35	-35	-125	35	65	-55	-35	20	35
인도네시아	1330	10	-10	0	0	0	0	0	0	0
리비아	1390	0	0	0	0	0	0	0	0	0
알제리	750	-10	0	0	0	0	0	30	30	30
가봉	287	53	48	48	48	48	48	48	63	63
합계	24520	540	845	455	885	1465	795	1115	1365	1360

〈자료〉PIW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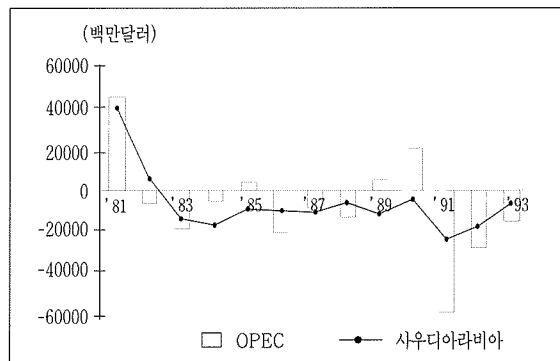
계 때문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또한 OPEC은 95년 9월 말 (25-26일)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된 산유/소비국 회의에서 공급 물량조절을 위한 비 OPEC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회원국의 재정악화, 시장점유율 축소, 회원국간 결속력 이완, 비 OPEC 산유국들의 협력부족 등으로 OPEC이 국제 유가인상을 위하여 쿼터를 감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무작정 증산을 주장할 수도 없다. 이는 유가를 더욱 하락시켜 대부분 회원국들의 재정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OPEC로서는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일부 회원국 중에는 이렇게 무력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쿼터를 철폐하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sup>2)</sup>

(2) 수익 확대를 지향하는 사우디의 석유판매 전략

OPEC의 정책 표류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OPEC의 실질적인 리더이다. 지금까지 사우디는 석유 시장의 점유율

〈그림2〉 OPEC의 재정적자 현황



2) OPEC 전 사무차장 Fahdih Chalabi씨는 쿼터제를 철폐하고 시장규모를 확보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 베네수엘라 Arrieta 석유장관도 OPEC의 전략중 하나로 쿼터제도의 철폐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확보를 통한 장기수익의 증대를 석유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해 왔다. 그런데 최근 수년동안 지속되는 저유가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자, 사우디 정부는 재정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석유제품가격 인상, 불요불급한 국고보조 감축 등을 단행하고, 원유 수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질 원유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변경된 LPG 수출가격 체계변경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사우디의 수출수익 극대화 방안은 가격인상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지역으로의 수출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금년들어 사우디는 아시아지역에 대하여 이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A/L(Arab Light)의 아시아지역 FOB수출가격공식은 94년의 경우  $(Dubai+Oman)/2+\$0.35/b$  이었다. 금년에는 0.5달러의 프리미엄을 요구, 전년보다 0.15달러인상되었다. 12월 선적분에 대하여는 다시 0.1달러를 인상하여 0.6달러의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다. 중질원유인 A/H(Arab Heavy)의 아시아 공급가격은 Dubai유와 Oman유의 평균가격에다 일정 금액을 할인한다. 94년 1월에는 -2.5달러, 95년 1월에는 -1달러로, 9월에 -0.7달러, 12월 선적분에 대하여는 다시 -0.4달러로 0.3달러 인상시켰다.

94년 11월의 총회에서 사우디는 생산쿼터를 금년까지 동결할 것을 제안 이를 관철시켰다. 이것은 사우디의 석유정책이 시장 확보정책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년 8월 초에 Aramco 사장이던 Al-Naimi씨가 석유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석유장관의 교체로 급격한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관의 출신 배경을 고려한다면 석유산업에 대한 기업적 사고로의 접근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사우디는 가격안정을 통한 석유판매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석유정책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장점

유율 또는 가격 중시라는 명확한 구분없이 단기적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사우디의 정책변화로 OPEC의 정책이 더욱 응집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3) 미국의 대중동, 대 중앙 아시아 정책

사우디의 석유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중동정책이다.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이란 혁명 이래 석유의 안정적 공급 뿐만 아니라 중동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를 축으로 하는 중동분할 전략을 구축해 왔다. 중동국가간 세력균형을 유지, 유일 패권국가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 이 전략의 골자였다.

94년 말 현재 미국 석유 소비의 약 20%는 중동지역으로부터 도입되고 있다. 중동지역이 전세계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지속적으로 석유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중동 의존도는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금년 3월 15일 미국은 이란과의 유전개발 계약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국계 석유 회사 및 해외 자회사는 이란 석유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기업이 이란 석유개발이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유개발을 통한 이란의 경제발전은 회교원리주의에 입각한 패권주의를 부활시켜, 중동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의 대 중동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에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경제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중동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략도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금년 5월 미국방성이 발표한 중동전략에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중동의 영구평화 정착, 중앙아시아의 안정적 개혁등이 정책적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강력한 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동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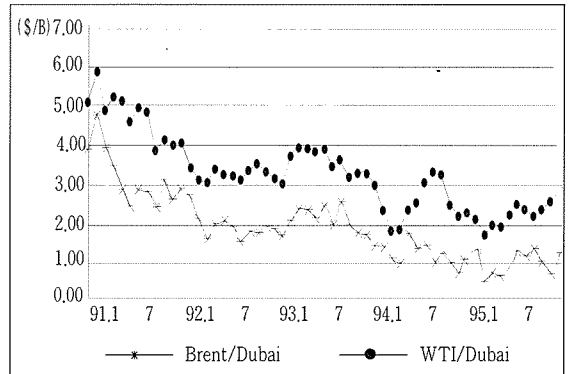
에 구소련 붕괴 이후 새로운 자원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 아시아에 대한 전략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유전개발에 대한 이란의 참여를 반대하는 한편, 카스피해산 원유 수송을 위해 터어키를 지원하여 그루지아 파이프라인 건설안을 지지하였다. 이 파이프라인은 초기 생산물 수송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이란과 러시아가 중앙 아시아 각국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경제제재에 대한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들의 공조관계는 미온적이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원유판매는 원활하며, 수익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는 최근 보도는 대이란 제재가 미국내에서의 정치적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UN의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도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이라크에 대한 강경정책은 비록 국제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강력한 미국」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 (4) 낮은 정제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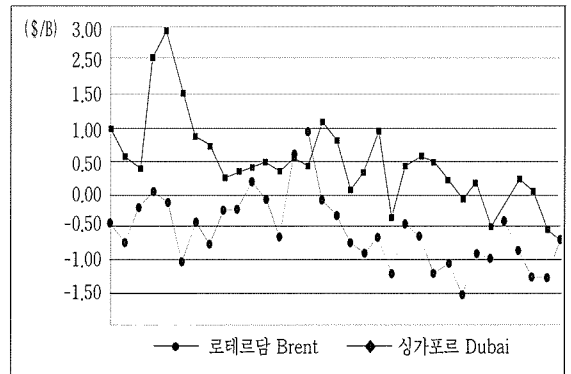
금년도 석유시장의 또다른 특징은 유종간 가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과 원유 정제마진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종간 가격차가 축소는 비 OPEC 지역의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저유황 경질원유의 공급이 증가되고 있고, OPEC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익극대화를 위하여 경질원유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가의 약세는 주요 정제센터의 정제마진을 하락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지역 정유소의 정제마진은 수년동안 감소되어 왔으며 정제능력의 과잉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이는 주로 석유제품 수요의 감소와 저유

〈그림 3〉 유종간 가격차 변동 추이



〈자료〉PMI 각월자료

〈그림 4〉 정제마진 변동추이



〈자료〉PMI 각월자료

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 하반기에는 아시아 지역도 제품수요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제마진이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유가하락 외에도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제품수입 증가와 사우디아라비아산 경질원유 수입증대가 정제마진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96년 전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도 석유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다. 반면 수요는 주요 소비국의 경기 둔화로 다소 증가세가 완화될 것이나, 극동 아시아를 비롯한 남미지역의 수요는 비교적 활발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IEA는 내년도 세계 석유수요가 금년보다 1.8백만 b/d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DOE와 영국의 CGES(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도 금년 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물량은 주로 비 OPEC의 증산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OPEC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표-3〉 '96년 세계석유수급 전망

(단위 : 백만b/d)

	1994	1995	1996	95/96 증가율(%)
수요	68.6	69.6	71.4	2.58
OECD	40.0	40.3	41.0	1.74
비 OECD	28.6	29.3	30.4	3.75
공급	68.4	70.1	71.3	3.75
비OPEC	41.1	42.4	43.9	3.54
OPEC 원유	25.0	25.3	24.7	-2.37
NGL	2.3	2.4	2.7	12.5
제고변동	-0.2	+0.5	-0.1	

〈자료〉IEA, Oil Market Report, 1995.10

한편 현재와 같은 OPEC의 결속력이라면 내년도에도 OPEC에 의한 공급량은 늘어날 것이다. 회원국의 쿼터위반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 OPEC지역에서의 증산은 지속될 것이다. 유가를 현

〈표-4〉 '96년 북해 생산전망

(단위 : 백만b/d)

	1995	1996	증감율(%)
영국	2.59	3.07	+18
노르웨이	2.76	3.12	+13
계	5.35	6.19	+15

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상시키기 위하여는 OPEC은 최소한 쿼터를 동결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표에 나타난 60만 b/d 이상의 감산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OPEC회원국의 공급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유가회복을 위하여 자국이 감산조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사우디 정부는 2000년까지 원유생산능력을 1200만 b/d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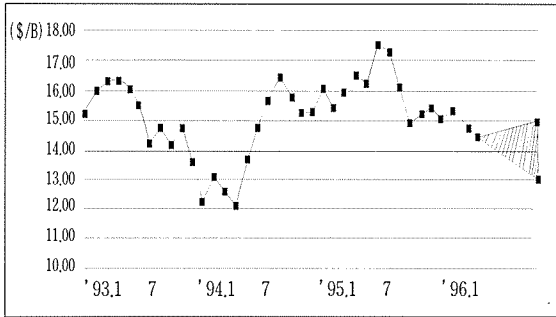
비 OPEC의 증산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특히 북해지역은 금년보다 15% 이상 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석유산업을 재정비한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 아시아의 국가들도 서방으로의 수출물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급상황으로 본다면 내년도 유가는 공급과잉에 따른 약세가 불가피하다. 하락폭을 결정하게 될 주요변수는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OPEC의 결속력과 비 OPEC의 공조여부이다. 회원국들이 쿼터를 준수, 시장을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유가 상승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공급과잉될 수 있는 물량이 OPEC의 쿼터 위반량과 유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감산을 통한 시장주도권 회복이 가능할 만큼의 결속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봉의 OPEC 탈퇴가 현실화 된다면 이는 회원국들의 결속력을 더욱 이완시키는 촉발제로 작용할 것이다.

급격한 유가하락을 막기 위하여는 비 OPEC의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년도 처럼 증산을 지속하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86년의 유가폭락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우디가 시장몹 경쟁에 참여하여 증산하고, 이라크 내분으로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어 경제제재가 풀려 석유공급이 일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10달러 이하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산유국, 특히 OPEC 회원국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단기적으로는 금번 동절기의 기상과 나이지리아

〈그림-5〉 96년 유가전망(Dubai 기준)



등 북아프리카 산유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제재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주요 소비국은 상업재고를 상당부분 감축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시적 공급애로에도 재고부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자극, 동절기 유가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금년처럼 국제투기자금이 유입하게 되면 가격은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년 동절기에 이상 기온악화가 없고 금년 하반기와 같은 생산활동이 이뤄진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60-80만 b/d의 공급과잉으로 유가는 현재보다 1달러 정도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량공급이 증대되는 하반기에는 유가는 더욱 하락하게 되어 내년도 유가는 Dubai유 기준으로 13-15달러대를 형성할 것이며, WTI는 15-17달러, Brent는 14-16달러 사이를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맺는 말

국제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중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다. 따라서 석유 가격은 수급 즉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내년도의 미국 대통령 선거도 국제원유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격한 정책은 가급적 피해 왔었다. 따라서 경기에 민간한 석유가격의 변동폭을 크지 않게 하려는 경향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고, 이는 유가 폭락을 방지할 또다른 안정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 중동정책은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의 「강력한 미국」에 대한 선명성 경쟁으로 인하여 이란/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흑화에 의한 공급중단, 유전사고, 정치적인 이유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선진국들의 경제제재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시적 유가 상승은 불가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8위의 석유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지금의 국제시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석유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 안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석유를 확보하는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국제 석유시장이 Buyer's Market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때에 대산유국들과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산유국과의 자원협력 및 상호유대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자원 사절단 파견의 정례화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유개도국과의 무역 확대를 위하여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교류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산유국이 수세적인 상황일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저유가 시대에 이완되기 쉬운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정부와 민간은 우리 석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